

與 원내지도부 지역출신 대거 포진…‘호남 입지’ 강화

민주 원내대변인에 문금주 의원 임명
김문수·권향엽·전진숙·조인철 부대표
김병기 “정책 역량·지역 안배 등 고려”
지지 기반 바탕 지방선거 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원내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의 국정 동반자로 나설 원내 진영에서 호남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원내 지도부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정책 역량과 지역 안배, 계파 균형을 모두 고려한 조합으로, 특히 호남 중용이 두드러진다.

당의 입장을 국회 중심으로 대외에 전달하고, 당내 의원들과 정책 메시지를 조율·관리하는 정치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원내대변인에는 문금주(전남 보성·고흥·장흥·강진) 의원이 발탁됐다.

문 의원은 제21대 대선에서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남 지역 조직 결집과 선거 동원 과정에서 이재명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금주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 허영 정책수석, 문진석 운영수석, 김병기 원내대표, 박상혁 소통수석, 이기현 비서실장, 김남근 민생부대표, 백승아 대변인.

연합뉴스

보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내부대표단 15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은 총 4명이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 을), 조인철 의원(광

주 서구 갑)이 나란히 부대표단에 포함됐다.

이번 인선은 친명계 중심의 권한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안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계파 색이 열고 조직 기반이 확실한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점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안정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당내 반발을 흡수하려는 현실적 고려로 읽힌다.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에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 호남의 동원력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 여당 권력 구도를 정비하면서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선택으로 읽힌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호남 인사 인선이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 대거 포함되는 등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은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김병기 체제의 원내진용에도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의 부름을 받아 원내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보다는 민생을, 일방통행보다는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이 국회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의원들과 정책위,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메시지 전략을 수립해 당의 비전과 정책을 보다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겠다”며 “국민의 신뢰가 곧 당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늘 겸손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밑받침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오지현 기자

여야,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살바싸움’

여 “상법 먼저” 법사위장 요구 거절
야,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의 치열한 살바싸움이 예상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팽팽한 줄다리를 예고하고 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주요 입법 대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이 오르자, 야

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인데, 당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다른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었으므로, 이 자리 만큼은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역시 진영 논리에 의한 입법이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양당 신임 원내대표가 만나는 이번주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오늘 국정기획위 출범… 안도걸·박군택 의원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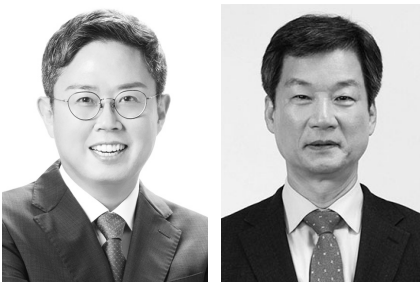
예산·사법개혁 등 핵심 중책 맡아
60일간李 정부 5년 청사진 그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는 가운데,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박군택(광산갑) 의원이 기획위원을 맡아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안도걸 의원은 국정기획분과, 박군택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정기획분과는 위원회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개헌·정부조직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 설계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 분과에서 국가 예산 편성과 기획 분야를 책임진다.

정치행정분과에 합류한 박군택 의원은 검찰개혁·사법개혁 등 법무 영역을 총괄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 의원은 위원회 내에서도 사법 제도 개선과 지방 균형 발전 공약 실현을 병행할 계획



안도걸

박군택

이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법무담당 위원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송정역 개발, 혁신도시 고도화 등 지역 발전 공약이 국정과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이종적인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기획에 강점을 지닌 안도걸 의원과 함께하게 돼 든든하다”며 “실무적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 경제1, 경제

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에 더해 위원회 내에 당 추천과 정부 추천의 전문위원 등 대규모 자문위원 그룹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헌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후 17일에는 전체 분과별로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18일부터 2박3일 간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각 정부 부처에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된 상태다. 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60일 동안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 정부조직 개편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국정 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경우엔 추가 업무 보고를 진행할 것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60일 동안 국정과제 순위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조직 개편안도 내놓는다.

서울=김선욱·정성현 기자

양부남, 25일 국회서 지역상품권 기금화 세미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를·사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 문대립,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이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이 유동적인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와 소상공인 등에서 정책 안정성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을, 한양대 강형구 교수가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